2019 년 1 학기 One Asia 재단 국제세미나

「인문교양:아시아 공동체:동아시아학의 구축과 변용」 시리즈 강좌 (11)

주제: 세계에서 아시아 공동체까지

제 11 회 One Asia 재단 국제세미나 강좌는 국립대만대학교 역사학과 간화이쩐(甘懷真) 교수를 문화대학으로 초대해 강연을 했다. 간 교수는 국립대만대학교 역사학과 박사로서 국립대만대학교 동아시아 문명연구소(台灣大學東亞文明研究中心) 집행장, 국립대만대학교 문과대학 부원장, 과학기술부 역사학 분야 소집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중국고대사, 동아시아 정치사, 황제제도와 유교 분야를 전공하셨다. 이번 강연 내용을 간단히 요약은 아래와 같다.

먼저 간 교수는 이번 강연에서 주로 전통적인 천하(天下)의 개념과 이것이 아시아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설명했다. 본인은 영업사원으로서 오늘 천하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홍보하러 왔다고 농담을 했다. 간 교수는 찰스 디킨스 ( Charles John Huffam Dickens ) 의 소설《두 도시 이야기》( A Tale of Two Cities) 중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을 인용하며 시대가 진보하면서 사회나 세계가 불안정해 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근대에 들어와 서양 민주제도는 새로운 민주국가를 만들었다. 다양한 의견이 용인되는 만큼 사회의 대립 또한 심해졌다. 간교수는 사회 분리와 갈등을 촉진하는 요인은 강압적 사회 정체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대 사회에서 유행하는 메이크업, 해어스타일 등은 일종의 교환부호로서 타인의 인정을 받으며 이를 통해 자기의 존재 의미를 확인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자기 인정을 크게 확장하면 민족 내지 국가의 정체성이 되며, 근대 국가의 개인에게 국민이라는 새로운 신분이 부여되어 민족 내지 국가 정체성은 오늘날에 세계 불안정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간 교수는 전세계에 부딪히는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 서양 제도의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즉 우리가 아시아 전근대 제도를 다시 되돌아보면서 새로운 제도를 구축하는 원리를 찾아야 한다는 뜻으로 「천하(TIANXIA)」의 개념을 핵심어로 삼고 있다. 천하의 개념은 중국 고대의 서주시대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한시대 황제제도의 핵심 사상으로 일본은 5 세기부터 자기정권과 통치구역을 천하라고 하였다. 또한 8 세기 일본 율령제 시대는 당나라 제도의 천하관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였다. 전통적인 천하는 하늘이

지배하는 인간이며 하나의 영역 개념이다. 천하는 각각 자립의 자주 정치 단위로부터 형성된 것이며 근대 동아시아 지역을 자칭하기도 한다. 이러한 천하관은 혈통, 언어, 종교, 문화의 통일을 요구하지 않으며 일체성도 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의 전통적인 천하제도는 19 세기 중엽 서방열강의 침략으로 인해 막을 내렸다. 사실 서양 제국주의가 구축하는 세계적인 정치제도는 정체성의 문제를 늘 강조하기 때문에 민족 간, 나라 사이에 심각한 대립을 만들어 심지어 큰 전쟁까지 일으켰다. 그러므로 요즘 학자들이 중국 역사의 맥락을 되돌아보기 시작하면서 중국사의 여러가지 현상을 탐구하여 근대 동아시아의 천하제도라는 개념에 근거하여 아시아 미래의 번잡함과 안정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이론을 찾고자 하고 있다. 이것은 최근 몇 년간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천하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배경을 가지는 이유가 된다.

마지막으로 간 교수는 서양제도가 새 민족국가(Nation-state)를 만드는 것을 인정하면서 현대 세계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각 나라는 민족주의를 특별히 확장하고 강조하면 안 된다고 했다. 다시 근대의 맥락으로 돌아가 천하에서 국민을 주인으로 삼는 제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 천하관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 지역에서 동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천하의 국민이라는 일체성을 만들어 이 공통성에서 서로 다른 점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즉 동아시아 국민들이 천하의 관념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포용심을 가져 전통적인 천하관념을 바탕으로 새 아시아 공동체를 구축한다면 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구착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했다.

웹사이트: https://oneasia.pccu.edu.tw/faculty.php)

번역: 사완영(한국어문학과 석사과정)

감수: 김선효(한국어문학과 부교수)